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 거대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2006서울WLIC

심효정 한국도서관협회 직원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학술분과위원

shjcap@hitel.net

언제 2006년이 되나... 그 날이 언제 오려나... 내심 멀게만 느껴졌던 2006서울WLIC대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즈음이다.

올해는 지난 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협회와 도서관계 전체가 발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시작이라고 해야하나... 미국에서 2006서울WLIC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연차총회(CEAL : the Annual Meeting for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에 정동열 조직위원회 홍보분과위원장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도서관인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설레임과 2006서울WLIC 홍보활동을 잘 해 내리라는 의욕을 가지고 바람의 도시 시카고를 다녀왔다.

CEAL 연차총회에는 지난 2004년에도 협회 한상완 부회장과 김도미 국제팀장이 참가하여 2006서울WLIC를 홍보했으며, CEAL에 대해서는 《도서관문화》(2004년 3월호)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CEAL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의 아시아학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의 한 위원회이며 한·중·일 동양서를 다루는 사서들이 참여하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단체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6서울WLIC는 우리나라 자료를 다루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아시아 주제 전문가 사서들의 주목을 끌 수 있고, 따라서 참석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연유로 이번 CEAL에서 2006서울WLIC를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CEAL 회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었기에 몸은 매우 피곤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3월 30일 'Hyatt Regency Chicago'에서 열린 총회와 각 분과 세미나에는 모두 250여 명 정도가 참석



하였다. 필자는 정동열 홍보분과위원장과 함께 총회 개막 전에 2006서울WLIC 영문 홍보책자와 작은 기념품을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2006년이 성큼 다가온 탓인지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간들이었다.

드디어 총회가 시작되고 CEAL 회장인 아브라함 유(Abraham Yu)가 2006서울WLIC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대표단이 참가하였다며 우리를 소개하였고 참가자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주었다.



3월 31일 오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참석자들과 CEAL 내 한국학자료분과(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Program)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정동열 홍보분과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한국 및 미국 내 도서관들의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그 날 주로 논의된 얘기들은 한글의 로마자 표기 문제(Romanize)와 저작권법에 관한 것이었다.

오후에는 CEAL 내 한국학자료분과위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다시 한번 2006서울WLIC 홍보를 시도하였다. 그 자리에서 정동열 홍보분과위원장이 '2006서울WLIC 준비상황'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정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2006서울WLIC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주미, 주캐나다 한국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아울러 CEAL과 한국도서관협회와의 교류의 활성화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도 발표하였다. 국회도서관의 조정관 사무관은

한국디지털도서관의 개요와 국회도서관의 연혁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박일심 사서는 KORMARC과 한국 국가도서관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한국학자료분과위원회 세션이 끝난 후에는 CEAL 임원들의 모임이 마련되었는데, 정동열 홍보분과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2006서울WLIC를 홍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CEAL에는 현재 2006서울WLIC를 위해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가 구성되어있다. 한 인사서 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남가주대학교도서관 조이 김(Joy Kim) 사서가 의장을 맡고 있다. CEAL 내에서 2006서울WLIC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CEAL은 앞으로 2006서울WLIC까지 조직위원회와 CEAL 내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저녁에는 CEAL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만남의 자리인 "Fellowship Dinner"가 마련되었다. 약 250여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분과 위원장들이 해외에서 참석한 자국관련 참석자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보다 많은 수가 참가했고, 홍보 덕분인지 2006서울WLIC와 한국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4월 1일 오전에는 한인사서 회장단과 CEAL 부회장인 멜저(Philip Melzer) 씨와 조찬모임을 갖고 2006서울WLIC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멜저 부회장과 그의 조찬모임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는 서둘러 귀국 길에 올랐다. 이번 CEAL 연차 총회 참가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들이었다. 특히 CEAL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 한인사서들을 만나보니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바로 한민족 한 핏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번 CEAL 출장은 2006서울WLIC 홍보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만 2006서울WLIC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관의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상호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반드시 필요함을 거듭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 